

제17기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인선의 함의

주장환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동서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I. 들어가며
- II. 인선의 특징과 그 함의
- III. 제17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특징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7천3백여만명의 당원을 가진 세계 최대 정당 중국공산당이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정책과 사람들을 확정했다.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제17차 당 대회)와 이를 통해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제1차 전체 회의(이하 제17기 1중 전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 두 회의를 통해서 중국공산당은 향후 5년간의 정책과 인선을 확정한다. 변화된 정책기조는 대부분 당 규약(党章) 수정안에 반영된다. 기실, 이번 제17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정책기조는 후진타오(胡锦涛)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재임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그의 노선 즉 ‘과학적발전관(科学发展观)’ 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예상대로 이 ‘과학적발전관’은 중국공산당 당 규약에 삽입되어, 마르크스 레닌주의 · 마오쩌둥(毛泽东)사상 · 덩샤오핑(邓小平)이론 · 3개 대표론과 함께 중국공산당의 공식 지도 노선의 반열에 올랐다.

이와는 달리, 인선 결과는 마지막까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후진타오가 다음 제18차 당 대회를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 후계구도가 그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밖에 중국의 명실상부한 정치 엘리트로 볼 수 있는 중앙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위원이 새로이 선출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들인지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글은 이번 제17차 당 대회 이후 곧바로 열린 제17기 1중 전회의 인선 결과를 주로 분석한다. 그러나 시간적 한계로 아직 제17기 중앙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 위원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최고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상무위원에 초

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글의 한계는 분명하다 할 수 있다.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해 제16기와 비교해서 알아보고, 이번 인선의 특징 및 그 함의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음으로 이번에 새롭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선출된 이들의 면면을 알아보고, 향후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II. 인선의 특징과 그 함의

여기에서는 우선 이번 인선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제16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과 비교를 진행한다. 그리고 그 함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선, 제16기와 제17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인원수는 9명으로 같다. 제16기 상무위원 중 연임에 성공한 이들은 5명이고, 따라서 제17기에는 4명의 인원을 새로이 선출했다. 흥미로운 것은 제16기와 제17기의 최고령자가 5세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제16기에는 1935년생인 쑤간(罗干)이 최고령자였고, 제17기에는 1940년생인 우방귀(吴邦国)가 최고령자이다. 또 이번에 재임되지 못한 4명 즉 쑤간, 황쥐(黄菊), 우관정(吴官正), 쩡칭홍(曾庆红) 등은 모두 1940년생 이전 출생자들이다. 성별 특성에 있어서 두 시기 상무위원들은 모두 남성이다. 출신 민족에 있어서도 두 시기 상무위원들은 모두 한(汉)족 출신이다. 출신 지역에 있어서는 제16기에는 안후이(安徽)와 장시(江西)성 출신이 후진타오, 우방귀와 우관정, 쩡칭홍 등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은 중국 최고 정치 엘리트를 배출한 지역인 반면, 제17기에는 안후이성이 후진타오, 우방귀, 리커창(李克强) 등 모두 3명을 배출하여 최다 배출 지역이 됐다. 평균 연령의 측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62세로써 같았다.

이들의 학력 수준은, 전체 학력을 기준으로 제16기(평균값: 5.22)에 비해 제17기(평균값: 5.33)가 약간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학력 수준에 해당한다.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시 선택 전공은 이를 자연과학 · 재정 · 경제 · 응용과학, 군사, 기타 등 3개 범주로 나누었을 때, 제16기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모두 제일 첫 번째 전공을 선택했고, 제17기에도 한 명 즉 리커창만이 기타 전공 즉 법학을 전공했고, 나머지는 모두 첫 번째 범주의 전공을 선택했다. 그러나 시진핑(习近平)도 학부는 칭화(清华)대 화공과를 졸업했지만 박사 학위는 동 대학 인문사회과학원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사상 정치 교육 전공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중국공산당 중앙 위원이 되기 전까지의 주요 캐리어를 살펴보면, 제16기의 상무위원들은 모두 엔지니어였고, 제17기는 이보다는 다양했다. 즉 7명은 역시 엔지니어였으나, 시진핑(당 기층 조직)과 리커창(공산주의 청년단)은 다른 캐리어를 가졌다. 따라서 제16기는 모두 기술 관료(테크노크라트)라고 할 수 있으나, 제17기는 7명은 기술 관료지만 위의 두 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제17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의 인선을 두고 봤을 때, 몇 가지 특징과 함의

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전체 구성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양화됐다고 분석된다. 물론 인원수, 성별 구성, 학력 수준, 출신 민족 등의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 했지만, 주요 캐리어, 선택 전공 등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치국 상무위원 즉 중국 정치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에서 '연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즉 이번에도 알 수 있듯이 회기 중 70세를 넘는 혹은 넘길 인사들에 대한 재임이 '대부분' 허용되지 않았다. '대부분'이라는 것은 일정한 막후교섭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규정대로 하자면 1942년생보다 나이가 많은 1940년생인 자칭린(贾庆林)과 1941년생인 우방궈 역시 연임이 불가능하지만 됐다는 것이다. 1939년생인 쟁칭훙이 재임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위 두 사람의 재임을 위해 그가 희생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16기 때의 관례를 따라서 소위 "七上八下" 즉 67세는 되고, 68세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중국 정치에서 '불문율'인 연령과 관련된 규정은 점차 제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세대교체가 진행 중이다. 즉 제4세대에서 제5세대로의 전환이 일부 진행됐다. 대부분 기술 관료이며 문화대혁명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으로 하는 후진타오를 정점으로 하는 제4세대에서, 제5세대로 정치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중앙 위원 혹은 후보 위원으로 선출된 이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후 이 제5세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이뤄지겠지만, 새로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된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은 50대로써, 대부분 대학 졸업 학력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또 이들은 제4세대가 기술 관료 일색이었던 반면, 공산주의 청년단과 같은 군중 조직이나 기층 당 조직에서 성장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대부분 문화대혁명 이후에 대학을 다녔고, 개혁 · 개방 시대에 주로 활동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 사회가 공장 생산에 치중한 과거의 계획 경제 시대와는 달리 시장화 개혁으로 복잡다단해진 사회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 관리 및 통합형 인재상 속에서 단련되고 성장했다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인선과 관련하여 기존 중국 정치를 설명하던 유력한 개념인 '파벌'이 그 설득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파벌' 개념은 제도화와 투명성의 수준이 낮고 그 때문에 인치(人治)의 수준이 높은 중국 정치를 설명하던 주요한 분석 개념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위의 두 측면의 수준이 제고되고, 인치의 정도가 약화되면서 특히 중국 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다양화로 인해 점차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 이번 인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특정 인사를 특정 파벌로 묶는 식의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정치계에는 여러 중소 파벌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 특정 인사가 여러 파벌에 속해있다면, 아니면 여러 파벌과의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직접 속해있지는 않는

예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 정치엘리트들이 예전과 달리 단일한 공간과 경험 속에서 성장했기 보다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인 것 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예전 시기 당의 고위 간부의 자제들로 이뤄진 과별인 '태자당(太子党)'의 경우도, 현재 그 안에는 약 3-4개의 중소 과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과별 분석에 따른 현재 중국 최고 정치지도자 선출 레이스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시진핑의 경우 전 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를 지낸 시중선(刁仲勋)의 아들인 관계로 태자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경력으로 보면 여러 과별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그는 칭화대를 나왔기 때문에, 일각의 분석대로라면 '칭화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전 국무원 부총리 경바오(耿飚)의 비서를 지냈기 때문에 '비서방'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도 같은 대학을 나온 후진타오와 '비서방'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원자바오(温家宝)와 시진핑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이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그를 특정 과별의 인사로 보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그의 살아온 역정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적실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 최고위층으로 발탁된 인사들은 더욱 그러하다.

Ⅲ. 제17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특징

그렇다면, 이번에 선출된 상무위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하에서는 주되게 새로 선출된 4명에 대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경력에 근거해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이하는 중국 정치에 현존하는 권력 서열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진핑은 이번에 일약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되면서, 중국 정치권력 순위 6위로 발돋움했다. 그는 알려진 대로, 시중선의 5남매 중 셋째로 1953년 베이징에서 출생했다. 그러나 고위간부의 자제로서의 그의 삶은 순탄치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시진핑이 9세인 1962년에 아버지가 당 내외의 일체 직무를 박탈당하고, 이어진 문화대혁명 과정에서도 박해를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감호소에 있던 16세 되던 해 시진핑은 산시(陝西)성의 한 농촌으로 '지식청년(知識靑年)'의 신분으로 '하방' 됐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베이징에 상경했다가 경찰에 의해 6개월간 구금되기도 했다. 석방 후 다시 농촌으로 돌아간 그는 농부로서의 생활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 1973년 입당과 동시에 그가 속한 생산대대의 당 지부 서기를 맡았다. 1975년 농촌에 있던 그는 현지 정부의 추천으로 '공농병' 대학생의 신분으로 칭화대 화학과에 입학하고 1979년 졸업한다. 졸업과 더불어 당시 감호 조치에서 벗어난 아버지의 소개로 국무원 판공청에서 당시 총리였던 경바오의 비서로 재직했다. 1982년 그는 다시 허베이(河北)성의 현 서기로 임명받아, 기층으로 다시 돌아간다. 기층 활동에서 그 업적을 인정받은 시진핑은 그 이후 1985년부터 2002년까지 푸젠(福建)성에서 샤먼(廈門)시 당 위원회 상무위원·부 시장, 푸저우(福州)시 당 위원회 서기·푸젠성 당 위원회 부 서기·서기·성장 등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에 청화대 인문사회과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저장(浙江)성 당 위원회 서기 · 성장을 거쳐 천량위(陈良宇) 전 서기가 부패사건으로 낙마한 후 상하이(上海) 당 위원회 서기로 재직 중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 한마디로 그는 기층에서부터 단련 받은 대중 간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 또 학부와 대학원에서 각각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교차적으로 공부하였다. 초년기에는 아버지의 후광을 받기는커녕 그 때문에 수모를 겪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개혁 · 개방은 그를 대학에도 보내주고, 출세도 하게한 '고마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는 향후 국가 부 주석으로 당 외 직무를 맡으면서, 당 내에서는 당무와 조직 그리고 홍콩 · 마카오 등 지역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후진타오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통상적으로 후계자에게 맡겨오던 당 중앙 군사 위원회 부 주석에 선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리커창은 중국공산당 간부의 아들로 1955년 출생이다. 그 역시 문화대혁명 말기인 1974년 '지식 청년'의 신분으로 고향인 안후이성의 한 농촌 생산대로 하방됐다. 생산대 당 지부 서기를 하던 중 1978년 역시 '공농병' 대학생의 신분으로 현지 정부의 추천을 받아 베이징대 법률과에 입학한다. 입학 후 그는 학생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동 대학 학생회 책임자로 활동했다. 일반적으로 중국 대학의 학생회와 공산주의 청년단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에 따라 그는 1982년 졸업 이후 베이징대 공산주의 청년단 위원회 서기와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 학교부 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죽 그는 1998년 6월까지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중앙 서기처 후보 서기 · 서기 · 제1서기 등으로 재직했다. 이 기간에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시기의 경력이 그를 후진타오의 사람으로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데, 바로 후진타오가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에서 활동하던 시기인 1982년부터 1985년 사이 상하 관계로 같이 일했으며, 1993년부터는 후진타오의 3번째 후임으로 공산주의 청년단 제1서기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1998년 6월부터 그는 허난성에서 당 위원회 서기 · 성장 등으로 활동했다. 허난성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연이은 탄광 매몰사고, 에이즈 촌 문제 등으로 한때 사직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곤혹을 치루었다. 그러던 중 2004년 후진타오가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되자 진행된 첫 지방 지도자 인사에서 그를 랴오닝(辽宁)성으로 이동시켰고, 랴오닝성 당 위원회 서기로 재직하던 중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됐다.

이렇게 보면, 그의 경력에서 공산주의 청년단을 빼고 말할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후진타오와의 인연 역시 매우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그 역시 개혁 · 개방에 대한 입장은 매우 간고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중국에서 개혁 · 개방의 실시와 함께 대학에 들어간 78 · 79학번 세대는 제일 열

광적인 개혁 · 개방 지지 세대이다. 전공에서도 학부에서는 법학과 박사과정에서는 경제학을 두루 전공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현지의 일부 분석에 따르면, 그가 너무 오랜 기간 공산주의 청년단에서 일해서 제2의 후진타오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그 이후 맡은 지역 즉 허난과 라오닝 성에서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향후 후계자 쟁탈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인선에서도 제7위를 차지해서 제 6위를 차지한 시진핑에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향후, 그는 또 한 번의 공산주의 청년단 외 조직에서의 실력을 검증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당 내에서도 경제 담당으로 당 외에서도 경제 담당 국무원 부 총리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그가 곳곳에 장애물이 숨겨져 있는 중국 경제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할 경우, 후진타오가 아무리 지지한다해도 그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재 중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만큼 실적이 중요해지고 있다.

허귀강(贺国强)은 1943년 출생했다. 그는 전형적인 기술 관료의 길을 걸었다. 그것도 석유계통에서만 일했다. 즉 1961년 베이징 화공학원 무기화공과에 입학하여, 졸업 이후 1986년까지 산둥(山东) 루난(鲁南) 비료공장, 산둥성 화학석유공업청에서 줄곧 근무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산둥성 지난(济南)시에서 당 위원회 부 서기 · 서기로 재직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화학공업부 부 부장을 지냈으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푸젠성 성장, 충칭(重庆)시 당 위원회 서기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2년에 정치국 위원이 되었으며, 동시에 당 중앙 조직부 부장으로 재직했다. 그의 활동 경력을 토대로 보면, 에너지 계통에서 오랜 활동을 한 이들이 만든 파벌인 '석유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전통적으로 이 파벌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태자당'과의 관계도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향후 기술검찰위원회 서기로서 당내 규율 유지를 책임질 예정이다.

저우용강(周永康)은 후진타오와 같은 해인 1942년 출생했다. 그 역시 '석유방'이자 기술 관료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베이징 석유학원에 입학 이후 홍위병으로 활동했다. 졸업 이후 1985년까지 다칭(大庆), 라오허(辽河) 등 유전 지역에서 근무했다. 1985년에서 1988년 사이 석유공업부 부 부장을 거쳐, 1998년까지 중국 석유천연가스 총공사에서 총경리와 당조 서기 등으로 활동했다. 1998년에 국토자원부 부장을 거쳐, 2002년까지 쓰촨(四川)성 당 위원회 서기로 재직 중 제16기에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중앙 정법위원회 부 서기로 활동하면서, 공안부 부장, 무장경찰부대 제1 정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또 공안부 부장과 무장경찰부대 제1 정치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파룬궁(法轮功)을 과단성 있게 진압한 적이 있어서, 장쩌민을 위시한 '상하이방'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그의 이번 상무위원 발탁은 내부 승진으로 분석된다. 그는 향후 정법 위원회 서기로서 활동한다.

IV. 나오며

중국공산당이 새로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향후 5년의 중국을 이끌어간다. 이 5년을 지켜보면서 특히 정치 엘리트와 관련한 관찰과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상술했듯이, 이제 중국 정치 엘리트는 '과별'과 같은 개념만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될 만큼 복잡한 경력과 배경을 가졌다.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럴 때만이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실리를 거두는 분석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중국 정치 엘리트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와 분석 작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차세대 최고 지도자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 필자는 최근 '중국 차세대 지도부 개편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제안 받은 적이 있다. 거절했는데, 한편으로는 필자의 능력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차세대 지도부에 접근할지 또 이들이 과연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차분하게 준비하여 특히 최근 중국 정치 엘리트의 승진과정에서 지방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금부터라도 각 지방 지도자에 대한 접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2007/11/05)

